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속도

전남도, 8.2GW 규모...어업인연합회·관련 단체와 상생협약 지역주민 이익 공유·수산업 공존 등 우수모델 개발 적극 협력

전남도가 신안군 해상 8.2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신안군, 신안군어업인연합회,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어업인 권익 증진,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장수 신안군어업인연합회회장, 이도명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 위원장, 보드레 장필립 신안부유식풍력발전협회 회장대행, 어업인단체 대표, 발전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

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에 목적을 두고 지역 주민 이익 공유, 수산업 공존 방안 등 지역사회의 상생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대부분 지역은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과 발전사, 지자체가 공동 이익을 위해 단지 조성에 합의해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신안군 각 분야 10개 어업인단체가 모여 결성한 신안군어업인연합회가 어민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김영록 지사는 즉시 환영 성명으로 화답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자 혁신적 상생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 관련 기업에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민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전남도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상생 방안을 찾도록 어민·주민 참여 이익공유 및 수산업 공존 방안 마련, 인허가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임박함에 따라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전용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과 함께 신안 8.2GW 발전단지 선도시업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영암으로 문화재청 선정...연구·복원, 관광자원 활용 거점 역할 기대

고대 마한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연구하는 구심점이 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영산강의 출발점인 영암군이 선정됐다.

문화재청(국립마한문화재연구소)이 공모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해 마한역사문화권 주요 유적의 발굴기록물, 보존유적, 비지정 문화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전시·활용하는 통제탑(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후 2025년 착공예정이다.

전남도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함으로써 2012년부터 10년간 마한 유적 시발굴조사 등 이제껏 추진해온 기초를 바탕으로 마한역사문화권을 선도해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마한역사문화권 정책적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건의해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고, 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포함한 '8대 역사문화권 종합적 정비·육성' 국정과제

채택을 주도했다. 또 8대 역사문화권 지원사업 중 마한역사문화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원, 마한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20억원 등 마한 관련 사업비를 전국 최초로 정부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게 됐다.

특히 마한이 6세기 중엽까지 독자적인 정치체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역으로 아파트형 고분형식과 옹관묘, 금동관, 금동신발 등 전국 마한 유적의 77%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유체에 큰 힘이 됐다.

영암군은 2004년 국내 최초로 마한역사문화공원을 건립하고 마한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시종편 일대에는 50여 기의 마한시대 대형 고분이 밀집된 마한 유산의 보고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순조롭게 건립돼 경기도에서 전라도까지 마한역사문화권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마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통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 보드레장필립 본부장, 신안군 어업인연합회 김장수 회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 이도명 위원장. <전남도제공>

광주시·전남도,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27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연다.

20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사·도는 지역 인재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2012년부터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채용설명회는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돼 4년 만의 대면 행사다. 참여 대상도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물론 특성화고 학생들까지 확대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광주은행,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한국알프스 등 기업이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들도 참여한다.

공공기관·지역 기업 채용정보 발표, 공공기관 채용에 필수인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특강, 신규 직원의 취직 노하우를 전하는 잡(JOB)담 등으로 행사는 구성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전쟁 10대 영웅, 美 타임스스퀘어에 뜬다

보훈처·한미연합사, 맥아더 장군 등 선정...5월3일까지 영상 송출

국가보훈처는 20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미 합동영웅 10대 영웅'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삼성전자와 LG가 타임스스퀘어 각자 전광판을 통해 매일 680회씩 영상을 송출한다.

국가보훈처가 제작한 30초 분량 영상은 한국전쟁 10대 영웅의 사진과 이들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로 구성됐다.

10대 영웅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보훈처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했다.

유엔군 초대 총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 및 그의 아들, 서울수복작전 중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소 대위와 선교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꼽혔다.

또 서울의 고아 1천여명을 제주도로 후송한 '전쟁고아의 아버지' 딘 헤스 공군 대령,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명예훈장을 수훈한 펠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재미교포지만 '부모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자원입대한 김영육 미국 육군 대령이

선정됐다.

아울러 다부동 전투 영웅인 백선엽 육군 대장, 전쟁 당시 공군 최초 100회 출격을 달성한 김두만 공군 대장, 미8군 정보연락장교로서 서울탈환작전을 위한 결정적인 적군의 정보를 수집해 유엔군사령부에 넘긴 김동석 육군 대령, 서울수복작전 당시 정부청사 옥상에 인공기를 걸어내고 태극기를 가장 먼저 게양한 박정모 해병대 대령도 이름을 올렸다.

영상에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평화는 먼 곳에서 온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한국전쟁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홍보 영상에는 양국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자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0일→15일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이 15일간의 휴가를 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120일 이내 2차례까지 나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걸리며 육아 부담도 더 크기 때문에 다태아를 낳은 여성 공무원은 이미 2014년부터 30일을 더한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71년 광주일보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초빙 재공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거,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1993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중심 대학입니다.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한 GIST는 Q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등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2010년 설치한 학사과정은 혁신적인 교육을 강조하며 기초과학 실력과 폭넓은 인문소양을 두루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GIST의 미래를 함께할 비전과 인품, 청렴성과 리더십을 갖춘 총장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가. 광주과학기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교직원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나. 광주과학기술원을 세계 일류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실천력을 갖춘 분
다.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라. 광주과학기술원 정관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이력서 각 1부(소정양식)
- 지원자 사진 2매(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주요 업적 기술서, 기관 발전 및 경영계획서 각 1부(A4 5매 이내)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 (board@gist.ac.kr) 제출 가능
- e-mail 제출 시 반드시 도착여부 확인 요망(062-715-2975)

제출기한 2023. 5. 11.(목) 18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소정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임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및 문의

-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3층 이사회 사무국(기획팀)
- (Tel.) 062-715-2975 (Fax) 062-715-2979 (e-mail) board@gist.ac.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gist.ac.kr)

GIST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합병공고

2023년 4월 15일 사원총회에서 유한회사 구백화물(갑)과 유한회사 구백화물(을)는 같이 율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율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1일

“갑” 유한회사 구백화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16
이사 김영수

“을” 유한회사 구백화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16
이사 김민현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